자꾸자꾸 다가오는 것 근본 자리에 놓게 되면 고가 다 없어집니다

☞ 21면에서 계속

니다, 아마. 스스로 봄이 와서 스스로 물은 녹아서 청청하고, 아니 날은 밝아서 휘영청하니 꽃은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 열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지은 대로 소임을 맡아서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이 땅도, 흙도 살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 모든 걸 깔봐서도 안 되고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되고 건방져도 안 되고, 마음은 꿋꿋하게 주인공을 세우면서도 거죽으로나 행으로나 말로나 어디로든 겸손하고 건방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만물만생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까닭에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걸 통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떼 놓으면 무얼 통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급해서 한마음을 낼 때는 만 명도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만 명, 한 명의 한 생각에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천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급한 일에도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준 뜻이지 개별적인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왔으면 배고플 땐 그냥 집어 먹어야지, 절차를 따져서 누구 누구 누구 이럭하다 보면 다 없어지니, 닥치는 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은 쓰지 않고 그저 '이거 이럭하면 된다더라' 하고 남의 말 듣듯 하지 말고, 들어서 약이 될 것도 놓고 들어서 약이 안 될 것도 다 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체질이 돼서 나쁜 거는 흘러나가고 좋은 거는 거기서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금을 캐면 금만 일렁일렁해서 나오고 흙은 다 밑으로 빠져서 물로 들어가 다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가 밥 먹으면 대변으로 소화가 되듯이, 그리고 영양분은 다 몸으로 오장육부에서 인체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어떤 때는 "나는 꿈을 이렇게 꿨는데…." 하고 와요. 그런데 그것도 공부거든요. 생시도 꿈이요, 꿈도 꿈이에요.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에요. 이걸 까뒤집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미래에 가서 보면 미래에 가 본 대로 한 찰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해 놓고선 그거를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보고 '아, 이렇게 돼야겠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에는. 그러나 중생들은 미래에 가 보면 그 세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한 찰나예요. 꿈과 같은 거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건 초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걷고 있나를 잘 알면서도 말 못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여러분 앞에 가르쳐 주려니까, 생각을 잘하라 이겁니다. 과거의 모든 업을 녹여 버리는 것도 현재의 생각이고, 미래를 가져오는 것도 현재의 생각이다. 네가 지금 사는 거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미래에 어떻게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만히 볼 때 과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때에 미래는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하고 있는 걸 볼 때, 잘하든 못하든 올 겁니다. 그러니 살아서는 살아서대로의 과거 미래가 있고, 죽으면 죽는 대로의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고.

> 병도 가난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 괴로움도 지옥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만든 것 자기한테서 녹이고
> 자기한테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주인공을 꼭 믿어라!" 이러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 나 이런 것 좀 해 주시오.' 이러지 않아도 내가 잘못되고 잘된 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인공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부탁할 것도 없고 '당신밖엔 못 하겠군.' 하고, 혼잣말입니다. 뜻으로 말하는 거죠.

병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가난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괴로움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지옥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 거쳐 오면서 수만 가지의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또는 물에서 사는 짐승들이나 저 땅속에서 사는 애벌레들이나 딱정벌레, 무당벌레 이런 것들이 다 주고 먹고 주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자연계의 질서란 너무도 괭괭하게 질서 정연합니다. 여러분도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질서 정연하게 자기가 한 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다 전장(傳掌)할 길이 없어요, 서로가. 그러니깐 자기한테서 만들었으니 자기한테서 그것을 녹이고 자기한테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콩씨가 콩 싹으로 됐는데, 그 콩씨를 찾아 가지고 보이는 물질적인 콩씨가 아닌 콩씨가 된다면, 그 콩씨 하나에서 보이지 않는 콩씨의 마음이 우주 전체를 구르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대견스럽고 지혜롭게 잘 쓰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지옥이에요

질문 요즘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부지간에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마음의 짐도 무거운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지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고사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해서 여러분한테 고난을 갖다 줬나, 업보를 갖다 줬나, 칼산지옥을 갖다 줬나, 아수라지옥을 갖다 줬나. 네? 여러분한테 오간지옥을 누가 갖다 줬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각본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팔자 운명이라는 거, 삼재라는 것이 없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도 간단하게 내 마음으로 둥글려서 한 떡이라면, 떡을 하나 집어 먹었다면, 떡이란다고 또 떡으로 알지 마시고요. 보이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떡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떡을 보이는 떡 하나로다 비유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 떡 하나를 놓고서 내가 왜 제사를 지내라느냐 하면 뜻이 깊습니다. '주인공' 할 때는 전체를 둥글립니다. 여러분은 각자 각기 주인공 하면은 그저 나 하나의 개별적인 걸로 알지 마시고요. '주인공!' 하면 벌써 전체로 돌아갑니다. 이 위력이 얼마나 당당하고 신비한지 아주 참, 무슨 말로도 할 수 없는 도도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오시는 거 보면 속이 타서 불이 일어납니다. 하하하. 야, 한 집에 자식이나 하나 아프면 좋은데, 자식은 아프지 어른은 일 안 되지, 딸들은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지, 야,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온통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늦게 들어오지, 데모나 일으키지, 말썽 부리지, 또 자식을 길러서 시집이라고 보내려고 하면 잘못 가 가지곤 싸움을 하고 한 대 얻어걸리고 이러곤 들어오지, 이러니 이게 하루나 편할 일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거는. 지금 애들이 예전 애들과 같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걔네들 세대와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이건 꼭 맞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대로 우리들 방편도 바뀌어야 되는 이치처럼. 그리고 말로 해서 아니 됩니다. 말로 하면 이건 점점 더 빗나가고, 욕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때려서도 아니 돼. 단 있다면 미운 아기 떡 한 번 더 주랬다고 말을 곱상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안에다가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에너지가 통합니다. 내 전화통을 돌리면 그쪽의 벨이 울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착해집니다. 그건 뭐, 장담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이든 자식지간이든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이 올 수가 있어야지. 거죽으로도 화목이 오지 못하면서 속으로도 그냥 자꾸 업보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여러분의 전자로부터 좇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보가 전자로부터 좇아 나오는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에서 치올라오는 거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지금 다닙니다. 카세트 하나에 감긴 거를 지금 짊어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솔솔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막 펄펄 뛸 때는 보살의 행으로, 보살은 지옥에 들어가도 그 펄펄 끓는 기름 도가니를 녹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칼산지옥이나 불탄지옥이나 그냥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나. 여러분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그냥 딱 가라앉습니다. 전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되놔 버리는 겁니다. 그럭하면 지옥도 무너지죠, 자기는 보살이 되죠. 그런데 지옥이 한두 가집니까? 아수라지옥도 있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주정을 부리는데 그런 것도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음에서 그렇게 분기가 일어나고 조금만 보면 그냥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발산이 되는 거죠.

그 발산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길이는 팔십 리요, 넓이는 오십 리니라. 그렇게 큰 솥에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지옥고를 받으니…." 이럭하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돼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팔십 리라는 것은 유, 무를 말합니다. 저승, 즉 말하자면 내가 나기 이전으로부터 좇아 나온 사무, 좇아 나온 사유. 이렇게 해서 사, 사, 팔, 팔십 리. 그래 십이 들어가면 이게 동일하게 묶어집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같이 돌아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고가 자꾸자꾸 다가오는 거를 거기다가 놓게 되면 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가 있다고 팔자 운명을 타령하지 말고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안에 어떠한 자식들이 그렇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깊이깊이 다잡고 '이거는 전자에서부터 좇아 나온 지옥이다. 이거를 무너뜨려야지. 이거는 내 주인공밖에는 할 수 없다!' 하곤 거기다가 놨을 때에 지옥고가 다 무너집니다. 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일체를 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기에게 급한 게 있으면 '주인공, 당신밖에는 못 해!' 이걸 둘로 둬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밖에는 내 몸을 고칠 수가 없어. 내 몸이 아니라 당신 몸을 당신이 고칠 수밖에는 없어, 당신이 형성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자를 끌고 다니는 것도 주인이 끌고 다녀야잖아.'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당신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러곤 믿으세요. 감사하게 된 거는 감사하다고 믿고요.

이렇게 한다면 가정은 얼마나 풍부해지며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생동력 있으며 또 자식한테는 얼마나 뿌리가 튼튼하게 싱싱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는 묵은 빚을 갚으며, 묵은 빚을 갚음으로써 다시금 그 부모가 햇빛으로 나올 때에 정말이지 통장을 가지고, 싱싱한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옴으로써 자기는 자기대로 또 그것이 거름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한테서 나왔다 나한테로 들고, 나한테서 나왔다 나한테서 들고, 그 자리의 조작이지 딴 데서는 조작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딴 데서 들어오는 조작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나고 드는 조작이 거기라는 거를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이리 팡 치고 저리 팡 치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석존께서는 속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항복을 했고 자기가 항복을 받은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